

# 노인영화의 환몽구조 연구-〈수상한 그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ructure of Fantastic Dream of the Elderly Movie -Focused on 〈Miss Granny〉

임정식

백석대학교 연기예술학과

Jeong-Sig Im(dada8847@naver.com)

### 요약

이 글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제작이 활발해진 노인영화의 핵심적인 특징을 환몽구조로 파악한다. 그리고 <수상한 그녀>를 중심으로 ‘현실-꿈(비현실)-현실’의 환몽구조가 작품에 구현된 양상과 의미를 고전소설 『금오신화』와 비교해 살펴본다. <수상한 그녀>에서 환몽구조가 구현되는 양상은 1)인물과 공간의 이중성, 2)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넘나들기로 요약된다. 이 영화에서 며느리와외의 불화, 요양원 입원 등으로 괴로워하던 70대 할머니 오말순은 20대 오두리로 변신했다가 오말순으로 돌아온다. 오말순은 20대 처녀라는 꿈(비현실)의 세계를 경험한 후 내면의 변화를 겪고, 새로운 인물로 거듭난다. 이때 꿈의 세계가 현실 세계 안에서 펼쳐지는 점이 일반적인 판타지영화의 환몽구조와 다르다. <수상한 그녀>는 환몽구조를 통해 인물의 갈등 해소와 소망 실현, 정신적 재탄생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치매 노인이 등장하는 <장수상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노인영화는 환몽구조의 보편성과 고령화 사회의 시대적 특수성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 중심어 : | 노인영화 | 수상한 그녀 | 환몽 구조 | 금오신화 | 고령화 사회 |

### Abstract

This article sees the cor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movies, which have become active in the 2000s, as the structure of fantastic dream. And I analyze the aspect and significance of the structure of fantastic dream of ‘reality-dream-reality’, which is centered on <Miss Granny>. The structure of fantastic dream is a traditional form handed down from the Silla era, and it is well-known in 『Gumoshinwha』 and 『Gumong』. In <Miss Granny>, the aspect of the structure of fantastic dream is summarized as 1)the duality of person and space, 2)the boundary between reality and unrealism. In this film, heroine is suffering from a disagreement with daughter-in-law, hospitalized in a nursing home. After heroine passed the world of dreams, becomes a new person. <Miss Granny> expresses the process of solving the conflict of the characters, realizing the hope, and the process of mental rebirth through a structure of fantastic dream. The elderly movies accept the universality of the structure of fantastic dream an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an aging society.

■ keyword : | The Elderly Movie | Miss Granny | Structure of Fantastic Dream | Gumoshinwha | An Aging Society |

## I. 머리말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2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2000년에 7%, 2008년에 10.2%였던 것을 감안하면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 따라서 이전 시대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노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2000년대에 노인의 삶을 다룬 영화 제작이 활발해진 것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관련이 있다.

노인영화는 노인들의 삶과 직결돼 있는 죽음, 질병, 치매, 고독사, 경제적 궁핍 등의 문제를 비유적·다문다. 서울 시내 특정 공간에서 벌어지는 노인 매춘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도 있다. 노인영화는 “다른 조건 하에서는 반복될 수 없는, 그 시기의 특수한 성격에 상응하는 예술 작품”[2]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영화를 서사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다수의 작품이 환몽구조를 차용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노인영화에서 환몽구조는 현실과 꿈의 대비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과 내적 욕망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실-꿈(비현실)-현실’의 환몽구조가 내재돼 있는 노인영화로는 <그대를 사랑합니다>(2011), <수상한 그녀>(2014), <장수상회>(2015) 등이 있다. 특히 <수상한 그녀>는 환몽구조가 영화의 전면에 드러나 있고, 또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작품이다.

<수상한 그녀>는 요양원에 들어갈 처지에 놓인 70대 할머니 오말순이 갑자기 20대 오두리로 변신했다가 오말순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이다. 오말순은 20대 처녀라는 꿈(비현실)의 세계를 경험한 후 내면의 변화를 겪고, 나아가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한다. <수상한 그녀>는 환몽구조를 통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고단한 현실과 내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수상한 그녀>는 국내에서 865만 명의 관객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또 중국,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해외에서 리메이크가 이뤄져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수상한 그녀>와 해외 리메이크 영화들

역시 할머니가 20대로 변신하고, 그 처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희망을 찾고, 새로운 할머니로 재탄생한다는 구조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서사물의 환몽구조는 『삼국유사』에 수록돼 있는 「조신전」에서 원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조신전」은 승려인 조신이 꿈속에서 평소에 사모하던 귀족의 딸과 결혼하고, 가난으로 인해 고통 받다가 헤어지고, 꿈에서 깨어난 후 불도에 정진한다는 내용이다. 환몽구조로 된 소설은 조선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창작됐다. 『원생몽유록』, 『구운몽』과 같은 몽유록 및 몽자류 소설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글에서는 <수상한 그녀>의 환몽구조에 나타난 특징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환몽소설 『금오신화』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의 영상물인 <수상한 그녀>와 고전소설에 나타난 환몽구조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정리하면, 노인영화의 장르적 특징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수상한 그녀>가 환몽구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노인영화의 시대 반영적인 특징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환몽소설과 영화의 서사 비교

환몽소설은 몽유록과 몽자류 소설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런데 “몽유록계 소설에서 꿈은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의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이고, 입몽자는 꿈을 깬 후 잠깐의 기이한 체험으로 여길 뿐이다. 몽자류 소설에서 꿈은 철저히 입몽자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장치”[3]의 역할을 한다. <수상한 그녀>는 오말순의 현실적 갈등과 소망 충족을 다룬다는 점에서 몽자류 소설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물의 행적, 공간의 특성 등의 측면에서 『금오신화』의 「만복사저포기」와 유사한 점이 많다.

김시습이 지은 한문소설집인 『금오신화』에는 다섯 편의 소설이 수록돼 있다. 이생이 피란 도중 죽었다가 환생한 부인 최 씨와 함께 생활하는 「이생규장전」, 홍생이 술에 취해 평양 부벽정에서 기자조선의 공주를 만

나는 「취유부벽정기」, 박생이 꿈속에서 염마왕이 지배하는 남염부주를 여행하는 「남염부주지」, 글 솜씨가 뛰어난 한생이 용궁의 잔치에 초대받아 다녀온 이야기인 「용궁부연록」 등이다. 이 작품의 인물들 가운데 이생과 홍생은 현실 세계에서 귀신(정령)을 만나고, 박생과 한생은 공간 이동을 통해 이계를 경험한다. 「만복사저포기」에는 양생이 비현실 세계를 경험하는 두 가지 방식이 혼재돼 있다. 「만복사저포기」의 주요 서사를 환몽구조에 맞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실 세계의 사건은 1-1)양생은 부모를 여의고 장가도 들지 못한 총각이다. 1-2)배필을 구하기 위해 만복사에서 부처님과 저포 내기를 해서 이긴다. 1-3)밤에 ‘인연 맺기’를 소원하는 시를 읊는다는 내용이다.

꿈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2-1)양생이 시를 마치고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려온다. 2-2)여인과 밤늦도록 정담을 나누고 술을 마신다. 2-3)개녕동의 여인 집으로 거처를 옮긴다. 2-4)사흘 동안 여인과 즐겁게 지낸다. 2-5)여인은 작별의 정표로 은주발을 준다. 2-6)여인이 왜구에 맞서 정절을 지키다 죽은 사실을 부모에게서 알아낸다. 2-9)여인을 다시 만나 하룻밤을 지낸 후 이별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시 돌아온 현실 세계의 사건은 3-1)양생은 여인이 소유했던 노비와 땅을 팔아 여인의 장례를 치른다. 3-2)그 여인이 남자로 환생했음을 알게 된다. 3-3)양생은 지리산으로 들어가 종적을 감춘다는 내용이다.

양생은 꿈의 세계에서 귀신을 만나고, 곧바로 귀신의 거처로 이동한다. 그런데 양생과 여인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개녕동은 현실 세계이다. 반면 양생이 여인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마을 사람들은 여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양생은 여인과 헤어진 후 현실로 되돌아오고, 여인을 다시 만나서 하룻밤을 보내고, 여인을 위해 글을 지어 조상(弔喪)한다. 이처럼 「만복사저포기」에는 현실과 비현실의 세계가 혼재돼 있다.

<수상한 그녀>의 환몽구조는 인물이 ‘오말순-오두리-오말순’으로 변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오두리는 오말순으로 돌아온 순간에 “좋은 꿈을 꾸었제. 참말로 재미나고 좋은 꿈이었구먼.”이라고 말한다. 이때의 ‘꿈’은 그가 오두리로 생활한 경험을 가리킨다. <수상한 그

녀>의 서사를 환몽구조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실 세계의 사건은 1-1)오말순은 사사건건 머느리를 구박하고 꾸짖는다. 1-2)머느리가 스트레스를 받아 입원하고, 아들은 오말순을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한다. 1-3)옥자와 실버 카페에서 몸싸움을 한다. 1-4)옛날에 종업원으로 일했던 식당의 딸에게 봉변을 당한다. 1-5)사진관에서 영정 사진을 찍는다는 내용이다.

꿈(비현실)의 세계의 사건은 2-1)오말순이 오두리로 변신한다. 2-2)헤어스타일과 이름을 배우 오드리 헵번 처럼 바꾼다. 2-3)손자인 반지하가 이끄는 밴드에 보컬로 참여하고, 가수로 데뷔한다. 2-4)박 씨에게 정체가 들통 나지만, 박 씨는 오두리를 평소처럼 대한다. 2-5)신인 가수로서 방송국 가요 프로에 출연한다. 2-6)방송국 PD와 연애를 한다. 2-7)피를 흘리면 할머니로 되돌아가는 사실을 알아낸다. 2-8)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손자에게 헌혈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돌아온 현실 세계의 사건은 3-1)오말순이 머느리와 함께 손자의 공연을 보며 응원한다. 3-2)오두리를 발굴한 방송국 한승우 PD는 오말순을 알아보지 못한다. 3-3)박 씨가 청춘사진관을 다녀와서 20대 청년으로 변신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오두리가 경험한 세계는 환몽소설의 ‘꿈’ 단계에 해당한다. 그곳은 오말순에게 암울한 현실의 탈출구이자 유토피아적인 세계이다. 이는 「만복사저포기」의 양생이 여인과 교유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과 거의 일치한다. 각 인물들은 꿈의 세계에서 생활하며 현실 세계에서 결핍된 것들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수상한 그녀>에 나타난 ‘현실-꿈(비현실)-현실’의 서사구조는 환몽소설의 서사구조를 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과 비현실이 혼재돼 있는 양상도 비슷하다.

‘오말순→오두리’와 ‘오두리→오말순’의 변신은 특정한 전이 공간에서 이뤄진다. 오말순은 비현실 세계로 이동하면서 청춘사진관을 통과한다. 오말순은 사진관에서 영정 사진을 찍은 후 돌연 오두리가 된다. 오두리는 병원에서 손자에게 헌혈을 함으로써 오말순으로 돌아온다. 즉, <수상한 그녀>는 ‘현실→비현실’과 ‘비현실→현실’의 이동 과정이 대칭을 이루는 환몽구조이다. 전이 공간이 사진관과 병원으로 다를 뿐이다.

### III. 풍유 모티브의 구현 양상

#### 1. 인물과 공간의 이중성

<수상한 그녀>의 서사는 70대 할머니 오말순이 스무 살 오두리로 변신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발단이 된다. 오말순은 자신의 변신 사건에 직면해 큰 혼란을 느낀다. 오두리의 정신적 혼란과 충격은 얼굴을 때리거나 꼬집고, 시내버스 창문에 비친 모습을 보고 고함을 지르는 행위로 표출된다. 이는 오두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행동이다. 「만복사저포기」에서는 양생이 여인의 정체를 확인한다. 여인이 불전에 글을 바치고 흐느껴 울자 양생은 “그대는 누구신지요?”라고 묻는다. 그러자 여인은 “저도 사람인데, 뭐가 그리 의심스러우십니까? 그대는 아름다운 배필만 얻으면 되니 굳이 이름을 물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한다[4]. 인간과 귀신이 사랑을 나누는 초자연적인 사건은 정체의 확인을 거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런데 변신담에서 대상을 의심하고 정체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는 대상을 객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5]. 오두리 역시 오말순을 자신과 분리해서 객관화하려고 시도한다. 오두리는 변신의 의미를 “이대로 늙어 죽기에는 너무 원통하고 불쌍해 보이니까 하나님 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라고 규정한다. 오두리는 오말순을 과거의 인물로 치부한다. 반면 오두리 자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삶이 ‘원통하고 불쌍한’ 오말순과 다를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오두리의 객관화 작업은 한계에 부딪힌다. 오두리는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의 특징이 혼재돼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오두리는 스무 살 처녀의 외모를 얻었지만, 내면은 오말순 그대로이다. 따라서 ‘70대 할머니의 자의식을 가진 스무 살 처녀’ 혹은 ‘스무 살 처녀의 육체를 지닌 70대 할머니’인 오두리는 ‘수상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오두리는 할머니이면서 처녀인 동시에 할머니도 아니고 처녀도 아닌 모호한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의 이중성은 <수상한 그녀>의 환상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오두리의 모호한 정체성은 작중 인물과 사건이 충돌하는 원인이 되지만, 그 혼란이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

하지는 않는다. 박 씨는 오두리에게 여전히 존댓말을 쓰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아들도 어머니의 변신을 결국 수용한다. 오두리가 아이엄마에게 참짓, 물젖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지하철 시퀀스나, 한승우 PD에게 “남자는 밤일 잘하고 처자식 안 굶기는 게 최고”라고 말하는 오피스텔 장면도 단순한 해프닝으로 처리된다.

이처럼 갈등이 쉽게 봉합되는 이유는 오두리가 미분화된 신화적 세계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미분화는 보통 인간과 자연이 아직 분리되지 않은 신화적 상태를 일컫는다.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개별 존재들은 미분화된 전체성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6].

‘오말순의 내면+오두리의 육체’는 인간과 자연물의 동질성에 기반을 둔 미분화된 신화적 세계로의 회귀를 상징한다. 오두리는 자신의 정체를 확인한 뒤 오말순을 객관화하려고 하지만, 오두리의 분리 시도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말순과 오두리가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오말순은 거칠고 드세고 공격적이며, 오두리가 부드럽고 온화하고 다정다감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세계관이 반영된 설정이다. 원시적인 자연물의 속성을 지닌 오말순과 문명화된 인간의 속성을 지닌 오두리가 미분화된 상태로 공존하는 셈이다.

<수상한 그녀>에서는 공간도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오두리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겪은 비현실적인 인물인데, 현실 세계에서 보통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생활한다. 아들의 집, 실버 카페, 방송국, 놀이공원 등은 그가 오말순이었을 때에도 실재했던 공간이다. 비현실적인 인물과 현실적인 공간의 혼재는 환몽소설에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예를 들어 「이생규장전」의 최 씨 부인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와 살아 있는 이생과 함께 생활하고, 재산을 묻어둔 곳으로 가서 금과 은을 비롯한 재물을 찾고, 양가 부모님의 유품을 수습한다. 최 씨 부인은 전란 때 죽은 비현실적인 존재인데도 현실 공간을 살아 있는 사람처럼 누비고 다닌다.

청춘사진관 역시 이중성을 지닌 공간이다. 청춘사진관은 오말순이 현실 세계에서 비현실 세계로 진입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데, 이 공간의 실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오두리가 자신의 변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춘사진관으로 되돌아간 장면을 보자. 사진관이 있던 자리에

서는 중국집이 영업을 하고 있다. 중국집 여사장은 “여기에서 10년째 장사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오말순이 낙담한 채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청춘사진관 간판은 오말순의 뒤쪽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므로 청춘사진관은 실재 공간이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오두리가 다시 찾아가면 청춘사진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청춘사진관 시퀀스 이후의 장면은 정류장에 앉아 있던 오말순의 상상 혹은 꿈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결말에서 다시 반전이 일어난다. 박 씨가 청춘사진관을 다녀온 뒤 배우 제임스 دن을 닮은 청년으로 변신한다. 오말순은 할머니로 되돌아온 상태인데, 이번에는 박 씨가 청년으로 변한다. 이로 인해 관객들은 청춘사진관의 실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말순과 박 씨의 변신이 사실인지 아닌지 혼란을 느끼게 된다. <수상한 그녀>는 인물과 공간의 이중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복잡한 환몽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수상한 그녀>의 이러한 특징은 <장수상회>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장수상회>의 현실 세계에서는 남녀 고교생이 서로 사랑에 빠진다. 영화의 중심 서사는 그들이 결혼하고 나서 세월이 흐른 뒤, 늙은 치매 남편인 성철의 시점으로 전개된다. 성철은 치매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 장수마트와 같은 실재 공간에서 보통 사람처럼 살아간다. 영화는 후반부에서 현실로 되돌아와 아내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장수상회>에서 성철은 자신이 현실 세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곳은 실제로는 ‘현실-꿈(비현실)-현실’의 환몽구조에서 꿈의 세계에 해당한다. 그 세계는 아내와 자식들이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 성철의 비현실 세계가 공존하는 이중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수상한 그녀>의 꿈의 세계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노인영화의 환몽구조는 이러한 점에서 판타지영화의 환몽구조와 차별화된다. 판타지영화는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와 무관한 2차 세계를 배경으로 하거나(<반지의 제왕>), 현실과 비현실 세계가 분리된 서사공간을 토대로 한다(<해리포터> 시리즈). 판타지영화의 주요 서사공간은 실제하지 않는 가상 세계이며, 후자에 속하는 판타지영화에서 현실 세계의 인물은 공간 이동을 통

해 가상의 환상 세계를 경험한 후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이때 환상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의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인물들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반면 노인영화의 환몽구조에서는 인물이 꿈(비현실)의 세계로 이동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현실 세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그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지도 않는다. 환몽구조로 된 노인영화의 서사공간은 현실 세계이며, 이 세계에 비현실적인 요소가 투입함으로써 이중적인 면모를 지니는 것이다.

## 2.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넘나들기

<수상한 그녀>에서 오말순/오두리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든다. 또 현실 세계의 사건이 비현실 세계로, 비현실 세계의 사건이 현실 세계로 전이된다. 현실 세계의 사건과 비현실 세계의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물과 사건의 기본 성격, 인물간의 관계, 물건의 용도나 의미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오말순은 현실 세계의 인물이고, 오두리는 비현실 세계에만 존재한다. 그런데 오말순, 오두리와 관련된 사건 및 기억은 두 세계에서 공유된다.

오두리의 머리핀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넘나들기라는 <수상한 그녀>의 특징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징표이다. 오두리는 비현실 세계에서 한승우 PD로부터 머리핀을 선물 받는다. 오말순은 현실 세계로 돌아온 뒤에도 그 머리핀을 머리에 꽂고 다닌다. 비현실 세계의 물건이 현실 세계에서도 사용된다. 따라서 이 머리핀은 현실과 비현실 세계를 매개해 주고, 또 오두리의 생활 공간이 비현실 세계임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

「만복사저포기」에서는 은주발이 머리핀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 은주발은 여인의 부모가 딸의 무덤에 묻어준 것이다. 양생과 여인은 이 은주발을 술잔으로 사용한다. 양생은 은주발을 부모에게 보여줌으로써 여인의 현재 상황을 알려준다. 은주발은 현실과 비현실 세계를 이어주고, 양생과 여인의 만남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해주는 물건이다.

<수상한 그녀>의 환몽구조가 실존 인물이나 실재 사건을 통해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때

역사적인 사건은 영화의 현실과 비현실 세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오말순의 남편은 신혼 초 광부가 되어 독일로 떠났다가 사망한다. 이 설정은 우리나라가 1963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 독일로 광부 8,000여 명을 파견한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오말순은 파독 광부인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평생 혼자서 자식을 키워야 했다. <수상한 그녀>는 오말순이 남편과 이별하는 장면을 흑백의 플래시백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오두리는 이 사건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금요신화』에서도 역사 속의 사건이 작품의 시대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생규장전」의 최 씨 부인은 고려 시대 공민왕 때 홍건적을 피해서 피란 가던 도중에 도적에게 저항하다 사망한 인물이다. 「만복사저포기」의 서사도 역사적인 사건이 토대가 된다. 양생이 만난 여인은 왜구에게 저항하다가 죽은 인물이다. 남원은 고려 말 왜구의 침략이 극심했던 지역이다. 그렇다면 당시 남원에서는 왜구에 맞서 정절을 지키려다가 죽은 여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만복사는 전라북도 남원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이었고, 지금도 그 터와 유물이 남아 있다. 양생이 꿈속에서 여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개녕동과 보련사도 실재하는 곳이다[7].

이처럼 <수상한 그녀>는 「만복사저포기」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사건, 실재하는 공간, 실존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환몽구조 속에 끌어들이며 현실을 반영한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물이나 공간 이동, 경계 초월 모티프가 ‘현실-꿈(비현실)-현실’의 환몽구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수상한 그녀>에서 환몽소설의 장르적 특성이 다수 발견되는 것은, 환몽구조가 매체나 시대의 차이를 뛰어넘는 보편성을 지닌 서사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 IV. 갈등 해소와 정신적 재탄생

<수상한 그녀>에 나타난 ‘현실-꿈(비현실)-현실’의 환몽구조에서 앞의 현실과 뒤의 현실은 질적으로 다른 세계이다. 앞의 현실이 갈등과 불화의 부정적 세계라면, 뒤의 현실은 화해와 공존의 긍정적 세계이다. 이러한

차이는 오말순의 갈등이 비현실 세계를 거치면서 해결됐기 때문에 발생한다.

환몽구조가 환상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말순의 변화는 “결핍된 것에 대한 갈망, 주어진 것을 변화시키고 리얼리티를 바꾸려는 욕구”[8]를 반영하는 환상성의 특성을 구현한 것이 된다. 오말순은 비현실 세계에서 젊음을 회복하고, 가수의 꿈을 이루고, 가족과 화해한다. 모두가 오말순에게 부채하거나 결핍돼 있던 것들이다. 즉, 오말순은 환상 공간에 해당하는 비현실 세계에서 자신을 억압하던 상황을 모두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인물로 재탄생한다.

오말순이 겪은 갈등은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오말순은 며느리와 갈등으로 인해 요양원에 갈 위기에 처한다. 노인 문제 전문가인 국립대 교수 아들이 냉정하게 선택한 결과이다. 설상가상으로 실버 카페에서는 종업원으로 일했던 옛날 식당의 딸로부터 사기꾼이라는 욕설을 듣고 폭행까지 당한다. 격동의 현대사를 헤쳐 나온 오말순의 생애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다. 결국 오말순은 영정 사진을 찍으며 죽음을 준비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오두리로 변신함으로써 극적인 반전을 경험한다.

오말순은 비현실 세계에서 신체적인 변신 외에 정신적인 변화까지 경험한다. 그 변화는 자기희생을 통해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말순은 비현실 세계를 통과하며 미성숙한 존재에서 성숙한 사회인으로 거듭난다.

오말순은 현실 세계에서 미성숙한 인물이었다. 오말순은 집안에서 며느리의 존재와 위상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오말순은 사사건건 며느리를 구박하면서 아들의 출근 복장, 요리, 자녀 교육 등을 도맡아 처리했다. 또한 오말순에게는 타인을 이해하려는 의지나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오말순은 실버 카페에서도 옥자와 사사건건 충돌했다. 오말순을 둘러싼 갈등과 불화는 대부분 오말순의 성격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그 결함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과만장한 현대사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한 오말순은 자기희생을 통해 성숙한 인물로 재탄생한다. 오말순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손자를 위해 헌

혈을 하고, 할머니로 돌아온다. 손자를 구한 대가로 젊음을 포기한다. 이로 인해 오말순과 며느리의 갈등도 해소된다. 두 사람의 관계 변화는 반지하의 공연을 보면서 오말순이 “내 새끼 잘 한다”라고 응원하자 며느리가 “제가 왜 어머니 새끼예요. 내 새끼지. 내 배 아파서 낳았어요.”라고 말하며 웃는 장면에서 나타난다.

〈수상한 그녀〉에서 비현실 세계의 사건들은 현실 세계의 갈등을 해결하고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비현실 세계를 거쳐 온 현실 세계는 화해와 공존으로 채워지는데, 이러한 변화는 이기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오말순의 자기회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말순의 정신적 재탄생과 성숙은 통과제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오말순이 현실 세계에서 분리돼 비현실 세계로 진입했다가 현실 세계로 되돌아오는 과정은, 반 겐넵(Arnold van Gennep)이 통과제의의 세 단계로 정리한 ‘분리-전이-통합’의 구조와 일치한다. 분리는 오두리로의 변신, 전이는 비현실 세계 진입, 통합은 가족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난다. “미성숙한 인간이 성숙한 인간이 되어 집단의 구성원으로 재편입하는 과정은 모두 성년식에 포함된다[9].”는 관점에서 보면, 오말순의 행적이 지닌 의미는 통과제의 가운데 성년식과 동일하다. 오말순이 성숙한 사회인으로 재탄생한 사실은 옥자의 빈소를 찾아가 조문하는 장면에서도 알 수 있다.

오두리의 나이가 스무 살로 설정된 배경도 이와 관련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스무 살은 보편적으로 성년식이 행해지는 나이이다. 성년식을 포함한 통과제의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10]이다. 오말순은 통과제의의 전이 단계에 해당하는 비현실 세계를 통과한 후 성숙한 존재로 재탄생한다. 〈수상한 그녀〉는 오두리의 나이를 스무 살로 설정함으로써 오말순이 본질적으로 성년식의 신참자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효과를 거둔다.

스무 살은 또한 오말순의 삶을 재구성하기에도 적합한 나이이다. 남편과의 사별 이후에 전개된 오말순의 생애는 부재와 결핍, 가난과 시련으로 점철돼 있다. 따라서 스무 살은 오말순이 결혼 이전의 처녀 시절로 되돌아가고, 고난으로 얼룩진 실제 행적과 다른 삶을 살

아간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오말순의 삶에 결핍된 것들을 채워주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오말순→오두리’의 변신은 “현실에서 좌절된 꿈을 실현시키고 인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11]과 관련되며, 억압된 현실에서 벗어난 변신 이후의 행적은 “정신의 자유로움을 꿈꾸는 인간의 무의식이 ‘투사’되어 나타난 것”[12]이 된다.

환몽소설의 인물들도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는다. 『금오신화』의 이생은 부인과 사별한 상태이며, 양생은 부모가 돌아가신 데다 가난해서 결혼도 못한 노총각이다. 박생과 한생은 뛰어난 학식과 글 솜씨에도 불구하고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누추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 인물들은 ‘현실-꿈-현실’의 환몽구조를 통과한 후 새로운 인물로 거듭난다. 『구운몽』의 성진 역시 승려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꿈속에서 양소유로 태어나 현실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꿈에서 깨어난 후에는 도를 닦는 일에 매진해 극락세계로 간다.

이처럼 〈수상한 그녀〉의 오말순은 『금오신화』나 『구운몽』의 인물들처럼 꿈(비현실)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정신적인 변화를 겪은 후 새로운 인물로 재탄생한다. 〈수상한 그녀〉의 환몽구조는 주제 측면에서도 환몽소설과 본질적인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수상한 그녀〉에서 인물의 갈등 해소는 현실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말순은 손자를 살리고 며느리와 화해함으로써 가족의 구성원으로 재 편입된다. 오말순이 현실 세계의 갈등을 비현실 세계에서 해결한 뒤 정신적으로 성숙해진 인물로 새롭게 태어난 결과이다. 〈수상한 그녀〉에 나타난 인물의 갈등 해소와 소망 실현, 정신적 재탄생은 환몽구조를 통해 구현된 것이다.

## V. 맺음말

2000년대에 활발하게 만들어진 노인영화는 치매, 요양원, 고독사와 같은 현대 사회의 노인 문제를 다각도로 담아낸다. 이 영화들 가운데 다수의 작품에 환몽구조가 내재돼 있다. 이 글은 2000년대 노인영화가 ‘현실-꿈(비현실)-현실’의 환몽구조를 차용한 구체적인 상상과 서

사적 기능을 <수상한 그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수상한 그녀>는 인물, 공간, 주제 등의 측면에서 환몽소설 『금오신화』의 「만복사저포기」와 공통점이 많다. <수상한 그녀>의 환몽구조는 인물이 ‘오말순-오두리-오말순’으로 변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오두리가 경험한 비현실 세계는 환몽소설의 ‘꿈’ 단계에 해당한다.

<수상한 그녀>에서 환몽구조가 구현되는 양상은 1) 인물과 공간의 이중성, 2)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넘나들기로 요약된다. ‘오두리의 외모+오말순의 내면’을 지닌 양가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변신이라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겪은 비현실적인 인물이 현실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점도 <수상한 그녀>의 특징이다. 꿈의 세계의 사건이나 물건이 현실 세계로 전이되기도 한다.

한편 오말순이 현실 세계에서 겪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은 비현실 세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말끔하게 해소된다. 오두리는 젊음을 되찾은 뒤 가수의 꿈을 이루고, 자기희생을 통해 가족 관계도 회복한다. 이를 통해 오말순은 새로운 인물로 재탄생한다. 환몽소설의 인물들이 꿈속 세계를 다녀와서 깨달음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

<수상한 그녀>는 환몽구조를 통해 인물의 갈등 해소와 소망 실현, 정신적 재탄생을 구현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 현실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도 <수상한 그녀>의 특징이다. 즉, <수상한 그녀>는 환몽구조의 보편성과 고부 갈등, 요양원 입원과 같은 현대 사회의 특수성이 조화를 이룬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진단학보, 제73호, pp.165-185, 1992.

- [6] 강진욱, “변신설화에서의 ‘정체확인’과 그 의미,” 진단학보, 제73호, pp.165-185, 1992.
- [7] 윤경희, “<만복사저포기>의 환상성,” 한국고전연구, 제4집, pp.235-257, 1998.
- [8] 캐스린 흠, 한창엽 옮김,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 [9] 임정식, “영화 <괴물>의 통과제의 구조와 그 의미,” 대중서사연구, 제22권, 제2호, pp.233-266, 2016.
- [10] 시몬느 비에른느, 이재실 옮김, *통과제의와 문학*, 문학동네, 1996.
- [11] 김지선, “동아시아 서사에서의 변신 모티프 연구 -한국과 중국의 서사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25집, pp.153-175, 2003.
- [12] 김선자, “중국 동물변신신화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10권, pp.153-179, 1998.

저 자 소 개

임 정 식(Jeong-Sig Im)

정회원



- 2012년 : 고려대학교 문예창작학과(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연기예술학과 강사

<관심분야> : 영화 비평, 각색

참 고 문 헌

- [1] <http://kosis.kr/nsportalStats/~10&NUM=1014>
- [2] 마르크스, 엥겔스, 김영기 옮김, *문학예술론*, 논장, 1989.
- [3] 박진아, “환몽구조로 본 <조신전> 연구,” 국학연구론총, 제6집, pp.247-276, 2010.
- [4] 김시습, 김수연, 탁원정, 전진아 편역, *금오신화*, 미다스북스, 2010.
- [5] 강진욱, “변신설화에서의 ‘정체확인’과 그 의미,”